



청춘에게 청춘을 묻다



청춘(靑春). ‘새싹이 파랗게 돌아나는 봄철’이라는 뜻의 청춘은 일반적으로 10대에서 20대에 걸치는 젊은 나이, 혹은 시절을 뜻한다. 지난달, 학보에서는 청춘을 주제로 ‘제8회 사진전’을 진행했다. 우리 대학 학생들이 생각하는 청춘은 무엇이며 또 어떻게 청춘을 보내고 있을까? ‘제8회 사진전’의 수많은 작품 중에서 전문가와 대중의 선택을 받아 수상하게 된 「청춘의 가치」, 「청춘이라면」, 「청춘」, 「꺼지지 않는 불꽃, 청춘(靑春)」을 찍은 이들에게 물었다. 작품 속 이야기와 수상소감 그리고 그들의 청춘을 들어보자. 박서진 기자 202190011@m365.knsu.ac.kr

「청춘의 가치」 “ 지금 아니면 즐길 수 없기 때문에 ”



사회체육학과 17학번 박정우(대상)

Q. 대상 수상 축하드립니다. 간단한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 제가 학교생활을 많이 하진 않았어요. 대외활동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것만 쪽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학교 생활에 남는 게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학과 학생회도 해보고 이번에 총학생회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총학생회를 하면서 여러 공지사향과 같은 것을 보니 학교에서 하는 행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졸업하기 전이라도 한번 나가보자는 마음으로 출품을 했어요. 이렇게 좋은 결과까지 나와서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Q. 어떤 상황에서 찍은 사진인가요?

A. 라오스 여행을 갔다 오면서 찍은 거예요. 직업도 다르고 각자 힘든 시기를 보

내고 있는 2, 30대 사람들끼리 청춘을 느끼고 싶어서 여행을 간 거였습니다. 심지어 여행의 주제가 ‘청춘’이었어요. 사진 찍을 당시에는 ‘블루라곤’이라는 계곡을 가는 길이었는데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음악도 뽐뽐하게 틀고 우리나라에서 할 수 없는 트랙에 매달리기도 했죠. 또, 옆에 보면 높은 건물이 하나도 없고 산으로 둘러싸여서 자연을 즐길 수 있었어요. 산, 구름, 바다, 노래, 좋은 사람. 게임 끝났죠. 그 자체가 너무 좋아서 사진을 찍으며 그순간을 남겼습니다.

Q. SNS를 보니까 출품한 작품만큼이나 훌륭한 사진들이 많던데요. 사진을 잘 찍는 자신만의 방법이 있을까요?

A. 저는 사진을 핸드폰으로 안 찍고 ‘고프로’라는 카메라를 사용해요. ‘고프로’로 찍으면 일반 핸드폰보다 화각이 되게 넓어서 사람을 좀 더 크게, 더 많은 사람을 한 번에 담을 수 있어요. 고프로 특유의 구도나 개성이 마음에 들어서 아직까지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사진 찍고 보정을 하다 보니 기술이 탄탄해지고 저만의 색깔이 나오더라고요. 또 제가 예전에 고프로 관련 활동을 한 번 해서, 그게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들이 제 사진을 보면 되게 특이하다고 하더라고요. ‘너만의 색깔이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뿌듯해요. 최근에는 제 보정법을 따라 하고 싶다는 사람이 있어서 알려주기도 해요.

Q. 여행 중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A. 제가 정말 감동한 일이 있었어요. 아까 언급했던 ‘블루라곤’ 계곡에 다이빙 판이

있었는데, 첫날에는 무서워서 그냥 내려왔던 누나가 한 명 있었어요. 한국에 돌아가기 마지막 날에 시간이 남아서 그 다이빙판에 다시 갔어요. 그런데, 그 누나가 ‘자기는 한번 더 뛰고 싶다. 근데 이번엔 나 혼자서 뛰고 싶다.’라고 하면서 그냥 터벅터벅 올라가는 거예요. 첫날에는 혼자서 진짜 아무것도 못 했거든요. 그걸 보고 알 수 없는 전율을 느꼈어요. 심지어 몇몇 애들은 감동해서 울기까지 했습니다. 도전의 의미도 알게 됐고 사람의 힘이 대단하다는 걸 느낀 것 같아요. 지금 말하면서도 소름이 쭉 끼치네요.

Q. 본인이 생각하는 청춘의 가치는 무엇인가?

A. 앞서 말씀드렸듯이 라오스 여행 가서 느낀 게 정말 많았어요. 여행하는 동안에는 힘든 걸 훌훌 털어버리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지금 있는 그대로를 즐기는 시간이 있었어요. 청춘의 가치는 사람마다 모두 다를 것 같아요. 저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은 채 좋은 사람들과 있는 그대로를 즐기는 게 청춘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Q. 청춘이지만 바빠서 청춘의 가치를 못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있을까요?

A. 우선 바쁜 건 다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총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알바나 대외활동 등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잠을 줄여가면서까지 하는 이유는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저는 이제 4학년이라서 대학 생활의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몸을 조금이라도 희생해서 나중에는 좋은 추억으로 만들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춘」 “ 청춘을 나이로 한정 짓는 건 아니다 ”



레저스포츠산업학과 19학번 이강한(은상)

Q. 은상 수상 축하드립니다. 간단한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 제가 수상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저 스스로 사진을 잘 찍는다고 생각하진 않아서 예상을 못 했습니다. 운이 좋게 많은 분들이 스티커를 붙여주시고 좋게 봐주신 덕분인 것 같아요. 예상치 못한 수상이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Q. 사진의 풍경과 인물을 봤을 때 이국적인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해당 사진을 찍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A. 제가 군대 전역하고 복학을 했는데, 여행할 수 있는 날이 얼마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방학 동안 혼자 배낭여행으로 한 달 정도 유럽에 다녀왔어요. 프랑스에 있을 때 사색에 잠기는 걸 좋아해서 공원에 앉아 있었는데 제 앞에 노년 두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두 분의 모습이 20대 못지않게 알콩달콩하더라고요. 너무 보기 좋아서 사진을 찍었었습니다.

Q. 사진을 잘 찍는 자신만의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요?

A. 아무거나 찍는 걸 좋아하진 않고 상징

성이 있는 건물이나 대표적인 것들을 찍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는 햇빛을 가장 많이 받았을 때 피사체가 가장 예쁘게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진을 찍는 저는 햇빛을 등지는 위치에 서고, 피사체는 햇빛을 온전히 받게 해서 찍습니다.

Q. 본인이 생각하는 청춘이 무엇이고, 어떤 이유로 이번 사진을 내셨는지 말씀해주세요.

A. 이번 공모전 한다고 했을 때 청춘이라는 게 단지 20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20대처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게 청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이 사진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청춘에 나이를 한정 짓는 건 아니다.’라는 제 생각을 설명을 적고 제출하게 됐습니다.

Q. 수상자님께서는 현재 청춘을 잘 즐기고 계신가요?

A. 제가 지금 운동이나 공부를 되게 열정적으로 하고 있긴 해요. 그런데 그 외에는 딱히 열심히 놀지도 않고 연애도 안 하고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제가 낸 사진과는 좀 동떨어진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제가 하고 싶은 운동,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청춘을 즐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Q. 청춘을 나이로 정의할 수 없다고 했는데,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느라 사랑도 하지 못하는 청춘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A. 저에게 쓰는 편지나 메시지 같기도 한데요. 저도 지금 바쁘게 살고 있는데, 바쁜 와중에도 남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 시간에 자기가 좋아하는 걸 열정적으로 하면서 살면 좋을 거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춘이라면」 “ 여러 가지에 도전하면서 실패도 해보는게 청춘이 아닐까 ”



노인체육복지학과 19학번 전진(금상)

Q. 금상 수상 축하드립니다. 간단한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 금상 받았는데 당연히 기분 좋고, 안 좋을 리가 없죠. 사실 상을 탈 줄은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그냥 ‘웃긴 거로 장려상이라도 받자’ 이런 마인드로 한번 내본 거였는데 뜻밖에 금상을 받아서 되게 기분 좋습니다.

Q. 어떤 상황에서 찍은 사진일까요?

A. 사진 속 주인공은 제 친구예요. 친구가 제 보디빌딩 대회 서포팅을 해주러 왔었어요. 그때 친구가 배고프다고 그래서 ‘난 괜찮으니까 장난으로 눈치 보면서 라면 먹어라’고 했는데, 저렇게 맛있게 먹더라고요. 저는 대회 전날에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친구가 놀리면서 먹는 상황이 웃겨서 사진을 찍은 거였어요. 어제 상 탔다고 말했더니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원래 친구가 표현을 잘 안 하는 친구인데 살짝 은은하게 좋아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Q. 본인이 생각하는 청춘이 무엇인지 또 어떤 이유로 이번 사진을 출품했는지 궁금합니다.

A. 일단 저는 마음대로 도전할 수 있는 게 청춘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디빌딩 대회에 나간 것도 그 과정이 어떤 걸 도전하는 과정이기도 하고, 친구가 나를 도와주러 오는 것도 그때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느꼈어요. 그리고 이게 바로 청춘이라고 생각해서 작품을 냈습니다.

Q. 다른 작품들과 달리 구도나 색감이 굉장히 특이한데요.

A. 저는 사진을 찍을 때 카메라가 내 눈을 대신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낸 사진도 뭔가 ‘애가 나를 놀리고 있고, 내가 개를 웃기게 쳐다보고 있다’라는 느낌을 담기 위해서 이렇게 구도를 잡았어요. 그리고 사진을 찍을 때 필름 카메라를 사용했어요. 80년대 홍콩 영화 느낌의 필름을 구해서 대회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용했었어요. 대회 전날도 가져가서 찍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상황이 청춘 영화의 한 장면 같아서 찍었습니다.

Q. 필름 카메라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A. 일단 첫 번째는 그 필름의 색깔이나 햇빛, 그리고 플래시 등 사용하는 법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도 너무나도 달라요. 거기에서 나오는 매력이 있어요. ‘나도 내가 찍었는데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 하면서 결과를 예상하는 거나 맞춰가는 과정이 재밌어서 많이 찍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미용실 가는 날처럼, 필름을 맡기러 가는 날이면 기분 좋은 날이 생기는 게 좋아요. 또 필름을 사면 그 결과를 기다리는 설렘도 하나 사는 느낌일까요? 그리고 가끔 날씨가 좋으면, 카메라를 챙겨서 그 날 한번 동네 돌면서 사진을 찍거든요. 그런 느낌이 좋아서 필름 카메라로 사진을 많이 찍는 것 같습니다.

Q. “청춘이라면” 꼭 해야 한다거나, 청춘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 청춘이라면 자신과 안 맞는 옷도 입어보고, 잘 맞는 옷은 어떻게 더 멋있게 할지도 시도해 보세요. 다방면으로 한 번씩 능력치를 키우거나 여러 가지에 도전하면서 실패도 해보는 게 청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노인체육복지학과 20학번 윤지혜

Q. 동상 수상 축하드립니다. 간단한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 제가 낸 작품 말고도 좋은 작품들이 되게 좋은 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동상을 받을 수 있어서 영광스럽습니다. 다음 사진전에도 참여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진을 내면서 청춘에 대해서 생각을 좀 더 깊게 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Q. 해당 사진은 언제 어디서 찍었나요?

A. 이번에 여의도에서 불꽃 축제를 했잖아요. 그때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여의도 공원까지 간 건 아니고 근처에서 찍은 겁니다.

Q. 본인이 생각하는 청춘이 무엇인지, 또 어떤 이유로 이번 사진을 내셨는지 알려줄 수 있을까요?

A. 저는 청춘을 불꽃에 비유했어요. 왜냐하면,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도 있듯이, 저는 청춘이 좋은 순간만 있는 건 아니라

고 생각해요. 불꽃을 보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짧게 빛나는 순간이 청춘이라고 생각해서 불꽃에 청춘을 비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 불꽃 사진도 많은 분이 공감하실 거라 생각해서 제출했어요.

Q. ‘저마다의 불꽃을 태우면서 살아간다.’ 짧고 굵고 뜨거우면서 때론 아프다고 청춘을 정의했는데요. 본인은 언제 뜨거웠고 아팠는지 간략하게 알려줄 수 있을까요? 그때의 나에게 한 마디도 부탁드립니다.

A. 제가 삼반수를 해서 학교에 들어오게 됐는데, 입학하기 위해 준비했던 때가 저 스스로 뜨거웠던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때의 나에게는 ‘충분히 뜨겁고, 아파해라’라고 하고 싶습니다.

Q. 현재 청춘을 잘 즐기고 있나요?

A. 잘 즐기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청춘이라는 게 연애 쪽이랑 관련이 많다고 생각해요. 제가 연애도 하고 이별의 아픔을 겪은 경험도 있어서 청춘을 잘 즐기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아직 타오르지 못하고 숨죽이고 있는 청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A. 타오르지 못하는 것도 청춘이 아닐까요? 꼭 뜨겁게 타올라야만 청춘인 건 아니니까요. 그렇게 꺼진 불꽃도 청춘은 청춘이니깐, 그대로도 충분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